

T. S. Eliot의 심연의 의식과 *The Waste Land*

김 인 숙
영 어 영 문 학 과
(1982. 10. 30 접수)

〈要 約〉

Eliot의 작품은 난해하다고 한다. 이 난해성은 무엇보다도 그의 시의 unity의 문제와 연결되어진다. 이 논문은 그의 세계관과 그에 따른 시이론을 간략히 살핀 후, *The Waste Land*를 주로 다루어서, 이들을 일관하는 근본적 unity를 찾아보려 한다. 그리하여 Eliot의 “심연에 대한 의식”이 바로 unity의 모체라고 생각한다. 이 심연은 “의식적 단계보다 더한층 깊은 곳”이며, 자신 속으로 깊이 침잠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eternity이며, 인간과 언어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며, 人間生命의 原地(Urgrund)이다. 이는 또 Eliot이 추구하는 “whole being”의 상태이며, 가상이 아닌 실재이다. 이 심연에의 의식이 Eliot의 세계관과 詩觀, 詩作過程,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시의 의미와 방법에 어떤 필연적 관련을 갖게 되는가를 살펴, 이로써 그의 시가 unity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中心課題가 될 것이다.

T. S. Eliot's Sense of the Abyss and *The Waste Land*

Kim, In-Sook
Department of English Lang. & Lit.
(Received October 30, 1982)

〈Abstrac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Eliot's poetry. The difficulty is, first of all, concerned with the unity of the poetry. In this thesis, I briefly survey his view of the world and poetics, and then study *The Waste Land*. So, I try to find the fundamental unity which runs through them.

I think the unity is derived from his “sense of the abyss”. The abyss is the place “far below the conscious level”, the eternity reached by going down “deeper into the self”, and the “Urg-rund.” The abyss is also the state of “Whole Being” which Eliot has steadily pursued and is not appearance but reality.

The subject of this thesis is to show how this “sense of the abyss” has inevitable relation to his view of the world, poetics, and the method and meaning of *The Waste Land*, and how *The Waste Land* gets unity with it.

I.

Eliot이 현미라는 네두리 속에서 끊임없이 인식하는 것은 한마디로 解體感과 斷絶感이다. 調和와 統습으로부터의 해체와 단절, 이것이 그의 세계관이며 그의 시이론의 바탕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시 歷史意識과 傳統意識은 누구보다도 굳게 지닌

이론의 많은 개념들은 이 단절을 극복하려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다. 즉 천재가 보여주는, 인간과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흠과의 단절, 언어와 인간의 단절, 시인과 언어의 단절, 언어와 사물의 단절 등은 그는 神話的 方法(mythical method), 청각적 상상력(auditory imagination), 沒個性理論(impersonalism), 客觀的 相關物(objective correlative)理論으로 이겨내려는 것이다.

해체감과 단절감, 이것은 또한 *The Waste Land* 는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많은 시의 주된 분위기와 이미지, 압도적 背景 혹은 主題를 이룬다. 그의 시에서 현대의 제양상이 가치로운 길이를 잃어버린 환무더기의 “broken images”로 표현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이러한 그의 世界觀은 *The Waste Land* 의 詩行,

he took me out on a sled,
And I was frightened. He said, Marie,
Marie, hold on tight, And down we went.
(I. 14-16)

의 表現을 빌어 “down we went”형, 혹은 썰매형 이론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에 의하면, 문명은 사회, 종교, 예술이 일련의 공통적인 기준과 가치를 표현했던 中世에 그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이것은 중세의 문화적 통일은 유럽공동체의 이상을 상징한다는 뜻이다.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이상의 퇴락을 나타낸다. 기독교세제는 민족국가들로, 교회는 이단들과 敎派들로, 지식은 분과별 전문화로 분열되어 이제 시인이 비애 속에서 그 자신의 시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오직 진보의 終焉—“기독교세제의 해체, 공동신념과 공동문화의 노쇠”—인 것이다.⁽¹⁾

그런데, Eliot의 시에 항상 보다 깊은 의미와 감동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중세의 文化的 統一이라는 꽃피움이 있기까지의 세와 뿌리와 흙에 대한 의식적 혹은 잠재적 깨달음이다. 이는 중세보다 한층 오랜 시대, 즉 그의 시 속의 神話와 傳說이 바로 생활경험이던 시머르까지 거슬러 내려가 닿는 그 “深淵에 대한 의식”(sense of the abyss)⁽²⁾이다. Eliot이 현대에서 느끼는 단절감은 바로 이 심

연과의 단절감, 해체감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심연이 그의 詩와 批評文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을 일구는 여러 이론과 이미지의 原因(뿌리)이다.

즉, 이 심연은 모든 가치로운 文化的 究極因이며 바로 人間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비밀스런 영역으로 표현된다.

All our significantly human acts have a
common and mysterious source; arising from
and returning into that secret realm where
our being generates itself.⁽³⁾

Eliot은 바로 이 비밀스런 영역(secret realm)과 현대와의 단절을 느끼며, 이 비밀스런 영역은 추구하여 이를 현대와 접합시키는 길이의 광부적 길을 극복하는 길이라 여긴다.

또 한편 이 심연은 그의 時空의 개념에서 調和의 한 점으로 표현된다.

Time present and time past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been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
(Four Quartets, Burnt Norton I.
1-2, 9-10)

위의 시에서 보듯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체로서의 시간의 假象은 만물이 다른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무런 동일성도 없는 生成의 세계에 속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無時間的인 세계는 아니나 “모든 시간이 언제나 지금인 세계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거기”라는, 길이, 넓이, 두께의 연속체로서의 공간의 환상은 의식의 좇짐에 의하여 포괄되는 부분으로써 “여기”가 된다. 神秘主義者는 시간의 환상의 핵심에서 잠든 현재를, 공간의 환상의 핵심에서 잠든 존재를 발견한다.⁽⁴⁾

Eliot의 이러한 時空概念은 F.H. Bradley에게서 얻어온 가상과 실제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결국, 실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가상이라는 생각이 Eliot의 모든 시에 일관하고 있으며, 가상과 실제의 이원적 세계관이 그로 하여금 한층 실재를 추구하도록 한다. 여기서 “실재”는 바로 “심연”으로 대

(1) Northrope Frye, *T.S. Eliot*, 강대권역(探求堂, 서울, 1979), p.16.

(2) Helen Gardner, *The Art of T.S. Eliot* (Faber and Faber Ltd., London, 1975) p.84.

그는 이 “Sense of the abyss”가 *The Waste Land*를 다른 작가의 作品(*Ulysses*)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라 한다. 물론 그는 그의 “Sense of the abyss”라는 표현만을 빌어, 이에 보다 무뎠은 의미를 부여하려 한 것이다.

(3) A.D. Moody, “To fill all the desert with inviolable voices” in *The Waste Land in Different Voices* ed. by Moody (Edward Arnold Ltd. London 1974) p.63.

(4) N. Frye, op. cit., p.69.

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Eliot의 시간의 실재는

A people without history,
Is not redeemed from time, for history is
a pattern.

Of timeless moments.

(Four Quartets. Little Gidding V.20-22).

에서의 "timeless moments"와 동일하며 바로 "history", "tradition"으로 연결되어 Eliot의 전통의식을 형성한다.

한편 그에게 있어서 이 심연으로서의 의식의식은 혹은 전통의식은 이미 價値觀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원은 이루며 그의 詩學의 根底가 된다. 먼저 그의 "impersonalism"의 개념만 하더라도 그것이 특수성, 개성에서 출발하여 보편성 일반성을 획득하고, 특수한 경험에서 보편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라 할 때 이 보편성 일반성은 역사(전통)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여기서 "impersonalism"은 Yeats의 "unity of being", 즉 "communal"(보편적)한 이상적 실체의 개념을 지니며 전통위에서 비로소 내리가 닿을 수 있는 의식의 심연인 것이다. Stead는 Eliot의 "impersonalism"에 대한 언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liot's 'escape from personality' is an escape from 'opinion' and 'rhetoric' which he, in common with Yeats, felt had marred the poetry written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second, that the 'escape' is made, not away from the self, but deeper into the self, 'below the levels of consciousness'.⁽⁵⁾

물론 Stead가 "below the level of consciousness"라고 할 때 이는 무엇보다도 詩人으로서의 詩作過程과 밀접히 관련된다. 즉 이러한 창작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시인의 의식의 심연이며 시인은 personality를 벗어남으로써 아니라 보다 깊이 자신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외와 전통의 밀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Frye는, "어떤 뚜렷하게 분간할 수 있는 형

태를 갖추지 않은 잡다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이 시인의 정신 내부에서 심층으로 가라앉아 그곳에서 바다 속에서의 변화를 입게(suffer a sea change)되는 것이다. 그 후 그것들은 언어의 형태를 요구하는 의식은 부정형의 어떤 것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⁶⁾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시인의 정신 내부의 "심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통 속에 놓여진 그리하여 자기존재와 재능—정도적 재능까지도—의 전통성을 이해할 줄 아는 시인이 궁극적으로 다다른 전통의 심연이며 의식의 밑바탕이다. 이리하여 한 시인의 내부의 심연을 거쳐 나온 언어들은 현재와 과거가 함께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결정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the mysterious union of words in poetry, to create a poem, is thought... of the process by which past and future are woven together into meaning in our personal lives and in history.⁽⁷⁾

인간 존재의 가치로운 근원인 심연이 또한 가치로운 시의 창조를 위한 "dark embryo"라는 것은 바로 이 심연이 Eliot의 세계관 뿐만 아니라 藝術觀 詩觀의 母胎라는 것은 이야기해 준다. 더욱이 이 심연은 시인이 지닌 시학과 사회의 예술관이 일치하는 이상적 지점 바로 그곳이다. 시인은 누구나 자신의 시와 외부세계, 현실세계와 상상세계, 경험과 본질간의 갈등을 겪는다. 이는 plato가 시를 mimesis라고 간파한 이래 더욱 여지없는 갈등으로 내리오고 있다. 시인의 예술이 사회의 공통적 삶과 밀착될 수 있으며 시인의 內的인 要求와 外的인 要求가 일치되어지는 상태를 Yeats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이를 "Unity of Being"이라 하였다. 예술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이 "Unity of Being"의 상태가 바로 Eliot의 "impersonal"⁽⁸⁾한 심연이다.

이 심연에서는 "impersonal"하고 "unconscious"한 요소들과 "floating feelings," "images," "phrases," "details"들이 "embrio" 속에서 언어에 의한 형상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5) C. K. Stead, *The New Poetic* (Penguin Books Ltd. London 1969) p.131.

(6) N. Frye Op. Cit., p.46.

(7) H. Gardner, Op. Cit., p.19.

(8) "impersonal"에 대해서는 Stead의 다음과 같은 분류가 도움이 될 것이다.

'impersonal'...	'personal'
'unconscious'...	(conscious) 'mind'
'feeling'...	'emotions'
'images, phrases'...	'structure'
'detail'...	'design'

(C.K. Stead, Op. Cit., p.129)

시인의 이러한 “feelings”가 독자의 혈관과 심장을 꿰뚫는 동감을 주는 유일한 방법, 즉 시가 독자의 “sensitivity”를 자극하여 드디어는 비밀스런 심연에까지 닿는 情緒의 經驗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Eliot은 “objective correlative”의 사용이라고 한다.

The only way of expressing emotion in the form of art is finding an “objective correlative”, in other words, a set of object, a situation, a chain of events which shall be the formula of that particular emotion; such that when the external facts, which must terminate in sensory experience, are given, the emotion is immediately evoked.⁽⁹⁾

objective correlative 개념은 시는 결코 자족적인 언어의 세계여서는 안된다는 Eliot의 시관의 바로이다. Eliot은 詩語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과 리듬의 시각적 심상이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함으로써 우리가 이를 직접적, 감각적, 정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개념은, 현대의 제 양상들처럼 낱말로 단절된 정서와 시어와 객체를 융합하여 이들로 하여금 건강을 되찾게 하려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다. 언어가 건강한 상태에서 언어와 사물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시인의 정서도 communal한 심연의 빛으로 독자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nguage in a healthy state presents the object, is so close to the object that the two are identified... The bad poet dwells partly in a world of objects and partly in a world of words, and he never can get them to fit.⁽¹⁰⁾

시인의 정서가 객관화되고 또 그 객체로서의 심상과 관념들이 그에 합당한 시어로 형상화될 수 있는 이상적 융합의 상태는 Eliot의 말처럼 결코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Eliot sees the process as ‘a concentration which does not happen consciously or of deliberation’. It is, in fact, a state of negative capability, ‘a passive attending upon the event’.⁽¹¹⁾

(9) T. S. Eliot, “Hamlet and His Problems” in *The Sacred Wood: Essays on Poetry and Criticism* (Methuen & Co., Ltd., London, 1972) p.98-99.

(10) T. S. Eliot “Swinburne as Poet” *Sacred, Wood* p.149-150.

(11) C. K. Stead, Op. Cit., p.128.

(12) E. Drew, *T. S. Eliot: The Design of Poetry* (Eyre & Spottiswoode, London, ode, London, 1954) p.39.

(13) H. Gardner, Op. Cit., p.3.

시어 하나 시 속의 이미지 하나도 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와 이미지 자체의 고유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그의 내부의 심연에서 스스로 솟아오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독자는 시인의 정서적 경험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인이 자신 밖이 아닌 자신 속으로 한층 깊이 침잠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심연을 im-personality 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의 언어와 사물의 융합 나아가서는 이들과 정서의 융합을 objective correlative라 한다면 이 의식 저면에서 갖는 리듬과 음절에 관한 감각을 그는 auditory imagination이라 한다.

What I call the ‘auditory imagination’ is the feeling for syllable and rhythm, penetrating far below the conscious levels of thought and feeling, invigorating every word; sinking to the most primitive and forgotten, returning to the origin and bringing something back, seeking the beginning and the end. It works through meanings, certainly, or not without meanings in the ordinary sense, and fuses the old and obliterated and the trite, the current, and the new and surprising, the most ancient and the most civilized mentality.⁽¹²⁾

위의 인용구는 결국은 다시 심연에 대한 언급이다. 원래 언어는, 人間의 정서와 감정의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Eliot은 이 언어가 일상적 사용(common use)에 의해 그 실재의 힘을 잃고 실재에서 멀어졌으며 이에따라 人間도 실재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Gardner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y refreshing the poetic vocabulary of our own day, Mr. Eliot has refreshed our appreciation of the poetic diction of earlier poets. He has made us more aware of its different vigour, by making us conscious of the potentialities of the language which we make dull by our common use.⁽¹³⁾

여기서 Eliot이 “potentialities of language”라고 일컫는 것은 人間이 실재에 대해 지니고 있는

potentialities이다. Eliot은 바로 이 신재인 심연을 그 자신의 언어로 뒤져줌으로써, 人間의 심연에 대한 의식은 다시 일깨우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시인 본래의 사명이며 시의 本來的인 역할인 것이다. E. Drew가 시의 본질에 대해 언급한 것도 바로 이와 일치한다.

...poetry had its origin in ritual incantation and dance. The utterance of the magic formulas, charged with the potency of tradition, released that power into the immediate present. At the same time, the formal ceremonious dance and chant isolated the participants from the fragmentary mundane rhythms of their daily occupations, opening pathways to the inward and secret rhythms of the deeper sources of life.⁽¹⁴⁾

다시 말해서 auditory imagination은 언어를 들음으로써 人間이 신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직접경험으로서의 상상 바로 그것이다. 이리하여 Eliot의 auditory imagination은 단순히 시의 외형으로서의 음절과 리듬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가 꾸준히 추구한 실재에도 이르는 한 걸음과 동시에 실제(심연) 그것이 된다. 그리하여 결국 auditory imagination이론은 가장 보편적이고 원래적인 것이므로 오히려 현실에서 독창적이라 보여지는 것이다.

This leads him to create an idiom and a rhythm that are new and individual, but which become classic.⁽¹⁵⁾

저술자적, 그의 세계관과 함께 "impersonalism", "objective correlative", auditory imagination을 중심으로한 그의 詩學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들은 일관되는 보편적 심연애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II.

여기서는 *The Waste Land*를 중심으로 이 심연의 의식이 어떻게 詩에 unity를 부여하는가를 살펴 보기도 한다.

우선 *The Waste Land*에서 부드러지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원래적이므로 하여 오히려 독창적이라 보여지는 또 하나의 방식인 mythical method

이다. Eliot에게 있어서 神話는 방법보다도 깊은 의미를 지니며 바로 심연의 변형이다. 실재로서의 심연의 한 변형인 神話는 가차없는 진실울 드러내 줌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實體이기도 하다.

...But the myth is not composed of abstract qualities; it is a point of view, transmuted to importance; it is made by the transformation of the actual by the imaginative genius.

The modern dramatist, and probably the modern audience, is terrified of the myth. The myth is imagination and it is also criticism, and the two are one.⁽¹⁶⁾

신화가 주는 이 두려움은 Eliot이 Jonson의 詩에 대해 언급하면서 "...Their words have often a network of tentacular roots reaching down to the deepest terrors and desires"⁽¹⁷⁾라고 할 때의 "terrors"의 동일한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에게 내재한 그러나 잊혀진 심연에 대한 비전을 신화가 일깨워 줄 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바깥으로 뒤집힌 공포"이다. 이 신화의 일깨움이 그의 시 깃부분에서 본의 이미지로 드러나 기억과 바깥은 뒤집어 놓는다.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I. 2-4)

심연에 대해 느끼는 바깥과 두려움은 현실이 심연, 즉 실재와 거리가 먼 假像이라는 것을 절제도 한다. 이 가상의 현실에서는 실은 이미 그 진정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죽음과 다름 바가 없는 것이며 이리하여 현실은 물론 더욱 광량하고 미실체적으로 보인다.

Unreal City

Under the brown fog of a winter dawn,

A crowd flowed over London Bridge, so many,

I had not thought death had undone so many.

(I. 60-63)

결국, 현실에서 느끼는 바깥은 가상의 삶은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재로서의 삶이다. 이 죽음

(14) E. Drew, Op. Cit., p.38.

(15) H. Gardner, Op. Cit., p.14.

(16) C.K. Stead, Op. Cit., p.133.

(17) Ibid., p.129.

과 삶, 죽음과 부활의 주제는 *The Waste Land*의 술한 신화와 전설—The Grail Legend, the Fertility Cult, Vegetation Mystery 등—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미지와 신플랍의 인용을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 기나 불타와 St. Augustine의 禁欲主義를 일관하는 공통의 주제이다. Eliot이 이 공통의 주제를 통해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은 결국 현대가 실재—진정한 삶—인 심연으로부터 단절됨으로써 얼마나 荒蕪地化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The Waste Land*에서 이 심연으로부터의 단절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階과 階의 개념을 상실한 세계로 나타난다. 앞에서 심연의 변형인 신화가 “imagination”일 뿐만 아니라 “criticism”이라고 한 Stead의 말처럼, 심연은 모든 인간 행위에 대한 批評이며 判斷의 근거이다. 심연에 대한 의식을 망각한 *The Waste Land*의 인간들이 그들 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간이 선과 악의 의미를 망각한 채 진정한 의미의 존재의식을 갖지 못한 이 상황을 Eliot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So far as we are human, what we do must be either evil or good; so far as we do evil or good, we are human; and it is better, in a paradoxical way, to do evil than to do nothing; at least, we exist⁽¹⁸⁾

이러한 그의 말은 인간의 선악의 개념이 부여되지 않은 행위는 이미 행위가 아니라는 逆說이며 행위 자체가 不在하는 *The Waste Land*를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는 곳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다음의 시에서 보듯이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을 오히려 진정한 삶을 가져다주는 봄보다 더근하게 느끼고, 죽음 속에서 작은 목숨만을 이어가며 웅크려 있는 인간들은 이미 존재 이하의 허깨비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함으로 “fear in a handful of dust”⁽¹⁹⁾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I.5-7)

둘째, 이 심연과의 단절의 양상은 사랑의 不在로 나타난다. 심연은 생의 근원이므로 이는 필히 사랑

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만치질 惟만이 인간풍요(human fertility)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의 의미가 망각한 이국의 사랑이 가치로운 심연의 의미를 지닐 수는 없는 것이다.

*The Waste Land*에는 오직 진실은 상실한 사랑의 풍경만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Tereus 30에게 사랑을 당한 Philomel이 날아가고(II. 99-103), 사랑 있는 결혼생활이 Lil을 쫓아내 준다. Lil에게 남겨진 것은 원하지도 않았던 다섯 어린애와 순한 아내나 할로 인한 쇠약과 붕괴인 것이다.(II. 139-164). Spenser의 Protalamion에서 한 때 요정들과 그 어린이들이 차지하였던 아름다운 강에는 이제 요정들은 돌아지고 강의 덴드는 썩어졌으며 그비들의 책들 또한 사라진 것은 심연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무소도 남기지 않고 떠나버렸다(III. 173-181). Thames 강의 세 딸의 노래는 이미 수치심까지 상실한 자 자신의 피약스런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조차 수치심함이 도사 거주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Trams and dusty trees
Highbury bore me. Richmond and Kew
Undid me. By Richmond I raised my knees
Supine on the floor of a narrow canoe.

My feet are at Moorgate and my heart
Under my feet. After the event
He wept. He promised a new start.
I made no comment. What should I resent?

On Margaret Sands.
I can connect
Nothing with nothing
The broken fingernails of dirty hands.
My people humble who expect
Nothing

(III. 282-305)

타이피스트의 방에서 벌어지는 情事도 타락한 인간 근태만을 보여줄 따름이다. 사랑이 인간의 풍요를 이루지 못하고 잘나지 욕욕으로 시드는 모서, 이것은 심연으로부터의 극단적인 단절의 무브의 한 例이다.

한편, 사랑과 性의 주제는 이 시의 신화에 나타나 있는 죽음과 부활의 주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Fisher King의 性的 부기덕함이 그의 영혼을 갱생

(18) T. S. Eliot, “From Baudlaire” in *Selected Prose of T. S. Eliot* ed. by F. Kermodé (Faber & Faber, London, 1975) p. 236.

(19) Sybil은 Apollo에게 한줌의 모래일만큼의 생을 요구했으나 영원한 젊음을 요구한 것을 잊었다 한다. Sybil에게 10배만큼의 생을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만 것이다. “fear in a handful of dust”는 무의미한 “가상으로시의 삶”을 의미한다.

의 부환이 없는 죽음의 황무지로 만든 것이라든가, 騎士가 원래 牲의 상징인 聖杯(The Grail)와 聖槍(The Lance)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Fisher King 에 내리진 저주를 풀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은, 사랑이 죽음을 통한 삶과 얼마나 不可分の 관계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세째, 심연으로부터의 단절은, 사랑의 부재와 관련되어 “죽음을 통한 부환”의 의미를 망각한 현실로 나타난다. 오르기 위해 반드시 내려가야 할 심연을 망각한 현태는 죽은이의 뼈가 흩어져 있는 귀의 통로와 다름 바 없으며(II. 115-116), 死者의 깨장이 부환에 대한 희망없이 행해지는 곳이다.

That corpse you planted last year in your garden
Has it begun to sprout? Will it bloom this year?
Or has the sudden frost disturbed its bed?
Oh keep the Dog far hence, that's friend to man,
Or with his nails he'll dig it up again.
(I. 71-75)

작년에 심은 시체가 아직도 싹이 트지 않았는가라는 귀절은 자연의 부환을 인간의 부환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심장의 리듬에서 자연의 순환의 리듬을 일치시켜 느낄 수 있던 때는 바로 fertility cult의 時代이다. fertility cult에서 神의 水葬은 그의 活力이 자연의 그것처럼 다시 소생하리라는 신념으로 행해졌다 한다. 그러나 지금 페니키아 水夫는 익사한 채 소생하지 않고(the drowned phoenician sailor; I. 47) Tarot pack의 점세도 익사를 두려워하라고 한다.(Fear death by water I. 55) 더우기 페니키아인 Phlebas는 죽은 지 보름이 다되도록 부활하지 못하고 그의 잔해만이 潮流에 이리저리 쓸려다닌다.

Phlebas the Phoenician, a fortnight dead,
Forget the cry of gulls, and the deep sea swell
And the profit and loss
A Current under sea
Picked his bones in whispers. As he rose
and fell
(IV. 312-316)

심연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제양상들 속에서도 두드러지듯이 *The Waste Land*에서 시종일관 중요한 것은 물의 이미지이다. 물은 그 자체가 이미

심연의 의미를 내포할 뿐 아니라 죽음과 부환을 동시에 의미하며, 더우기 Eliot의 가상과 실재 개념과도 일치하는 이미지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의 이미지가 *The Waste Land* 속의 불 여왕 가을 시울을 부단히 흐르며 표면에 浮遊하지 말고 심연으로 沈潛하라는 Eliot의 바램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물의 이미지는 때로는 우리들을 柱廊에 멈춰서게 하는 소나기가 되고(I. 9) 水穴 Phlebas가 빠져 죽는 바다가 되고(I. 47, IV. 313-315), 복유물이 되고(II. 135), 요정들이 흘러갈 Thames江이 되고(III. 173), Leman의 호숫가가 되고(III. 182), 때로는 Mrs. Porter와 그의 딸이 발을 담그는 소다가 된다(III. 200). 또 때로는 Fisher King이 남아 남시질하는 강가가 된다.(V. 423-424).

그러나 이 술환 물에 대한 이미지도 불구라고 시 절된을 압도하는 목마름의 분위기,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위기는 가쳐지지 않는다. 물산과 물소리하는 마치 목마른 이의 환상, 환청처럼 오러러 간음을 더하게만 하는 것이다.

물의 이미지의 또 하나의 역할은 권태와 무기력과 사민없는 情事로 더럽혀진 황무지를 깨끗이 씻어 내려주는 정화의 역할이다. 비가 오지 않는 *The Waste Land*의 상황은 정화의 비를 기다리는 현태의 상황이다. 물은 이처럼 죽음과 부환의 이미지의 정화의 이미지를 함께 지님으로써 정화의 수단이 되는 동시에 정화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심연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렇게 비를 기다리는 황무지에 비는 올 것인가? 귀신을 쫓고 마법을 풀리게 한다는 남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절망소리도 울리고 비를 머금은 습한 바람 또한 불어온다.(V. 391-394) vegetation mystery가 처음 시작된 Ganga江 조차도 마썩 마른 채 비를 기다리고 있다.(V. 395) 이때, 비를 머금은 먹구름 속에서 절충은 Datta(머러라), Dayadhvam(함께하라) Damyata(말기라)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Datta”는 모든 세속적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며 “Dayadhvam”은 개인주의와 고립을 배제하고 타인과 함께하라는 것이고 “Damyata”는 절제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을 말기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이곳에서는 이미 지켜지지 않은지 오래인 것들이다. 이곳에는 오직 불임의 사랑, 대화의 단절과 각자의 감방으로의 고립, 信心의 상실만이 만연해 있을 따름이다. 그

데도 Fisher King 은 여전히 홀로 강가에 앉아 고기—생명의 상징이며 기독교 신앙의 상징—를 낚고 있다. 배마른 강에서 고기가 낚일 것인가. 그러나 Fisher King 은 Datta, Dayadhvam, Damyata 를 유념하여 되풀이해보며 절망하지 않고 뱀이 내리줄 횡파를 걷는다.

Shantih Shantih Shantih

기독교의 Amen, 불교의 “나무아미타불”에 대당된다고 여기지는 이 옛습말 Shantih 는 Fisher King 의 딸인 뿐만 아니라 *The Wasted Land* 의 모든 장면을 바라보는 Tiresias 의 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Eliot 작가가 註에서 밝힌 것처럼 Tiresias 는 이 시의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인물이며 Tiresias 가 보는 것이 사실상 이 시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Tiresias 는 직접적 경험과 객관적 판단, 감정과 사상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는 인물이다. 그리하여 Tiresias 는 모든 일은 보되 존재에 대한 일식을 갖고 광부지의 假像을 꿰뚫어 보는 존재, 심연에의 의식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결국 Eliot 은 심연의 의식을 지닌 Tiresias 를 이 시의 구경꾼으로 삼음으로써 아무런 모욕적 관념을 버리지 않은 채로도 천매가 일마나 집단과 단절되어 있는가를 시종일관 보여주는 것이다.

이므로 이 시의 unity 의 물질을 Tiresias 의 판단력과 미스 할랄 평가라 보자. Leavis 는 이 시의 unity 는 “inclusive consciousness”의 unity 라고 한다.

The unity of the poem aims at is that of an inclusive consciousness....⁽²⁰⁾

한편 Stead 는 이 시의 “inclusive consciousness” 는 바로 Tiresias 라고 한다.

Tiresias, the poem's inclusive consciousness....⁽²¹⁾

시의 unity, “inclusive consciousness”, Tiresias 사이에 형성되는 중심은 Tiresias 가 지닌 포괄적 속성으로 하여 집단의 의식과도 무리없이 형성될 수가 있게 된다. 결국, 포괄적 계성을 지닌 Tiresias 의 존재 또한, 심연의 의식이 바로 이 시에 unity 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된다.

(20) F.R. Leavis, “The Waste Land” in T.S. Elio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by Hugh Kenner, (Prentice-Hall, Inc., N.J., 1962), p.97.

(21) Stead, Op. Cit., p.165.

III.

The Waste Land 가 동서고금의 술한 철학적 문학적 종교적 사상적 인유로 난해해 보이며 이 때문에 이 시의 unity 문제가 많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읽는 많은 독자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심하게 자극받은 경험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리 인간의 개별적 감정이 어떤 공감대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의 시가 우리의 공감대를 자극하고, 이에 우리의 감정이 시에 반응할 때, 어떤 인유의 난해함은 난해함이 아니다. 우리는 *The Waste Land* 속의 인유의 의미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감정이 이미 그 시 속에 포진된 잠재성내 속으로 몰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Eliot 의 세계관, 시론을 포함하여 *The Waste Land* 에 unity 를 부여하는 이 “심연”이란 것도 보다 쉽게 말하면 바로 인간과 인간의 공감대인 것이다. 어떤 단대한 시일지라도 그것이 시이므로 읽혀지기를 원한다. 읽혀짐으로써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공감될 수 있기를 원한다. 많은 시인은 자신의 이미지와 리듬을 배열하고, 시이론과 시학을 펼친다. 이는 오직 한가지, 공감대를 자극하여 감정을 시로 통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이다. Yeats 의 “Unity of Being”, “Whole Being”의 상태나 Keats 의 “negative capability” 등도 Eliot 의 실재(reality) —여기지는 지움것 “심연”으로 포진 되었다—와 동일한 달리한 것일 뿐, “공감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리하여 시는 시 자체의 unity 를 꾸미어 가셔야 할 필요는 없다. 시의 unity 는 시 자체의 unity 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감정의 unity 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독자와의 unity 를 달성하던 시 자체의 unity 는 시에서 직접으로 나타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Eliot 의 심연은 바로 우리의 심연이며 공감대이며 감정적 진실이다. 우리의 감정적 진실이 자극받아 울릴 때, 이 시의 물질이 되는 *From Ritual to Romance* 나 기타의 이러한 인유는 unity 속으로 녹아버리고 만다. 이미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unity 는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Stead 의 다음 말은 이를

더욱 확고히 해준다.

'*The Waste Land*' is composed of a series of projections of 'states of feeling', having no fixed centre but their common origin in the depths of one man's mind. Neither a reading of *From Ritual to Romance*, nor visits to Lausanne and Margate, will help us towards a more complete experience of the poem. Eliot's intellectual and physical experiences—the books he read; the places he visited are employed in various ways as vehicles for his feeling. But it is the feeling, not the experience, which is the poem's 'subject'.⁽²²⁾

참 고 문 헌

1. Drew, E. *T.S. Eliot: The Design of His Poetry*(Eyre & Spottiswoode, London, 1954).
2. Eliot, T.S. *The Sacred Wood: Essays on Poetry and Criticism*(Methuen & Co., Ltd., London, 1972).
3. Frye, Northrope *T.S. Eliot*, 강대건譯(探求堂, 서울, 1979).
4. Kermode, F., ed. *Selected Prose of T.S. Eliot* (Faber & Faber, London, 1975).
5. Kenner, Hugh, ed. *T.S. Elio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Prentice-Hall, Inc., N.J. 1962).
6. Moody, A.D., ed. *The Waste Land in Different Voices* (Edward Arnold Ltd. London, 1974).
7. Stead, C.K. *The New Poetic*(Penguin Books Ltd. London 1969).

(22) Stead, *Ibid.*, p.50.